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바다만큼이나 넓은 대륙, 양떼를 몰고 말 타기를 좋아하는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숨 쉬는 그 땅에서 펼쳐진 이흐올학교 학생들의 건강검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건강검진은 행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공존한 가운데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또 다시 남은 일정을 하나씩 수행하면서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뜻 깊은 행사에 있어서 한 몫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이 생겨 돌아오는 길은 온화함으로 가득했다. ✎김정숙 고객지원과장(검진관리본부)

몽골 학생 건강검진을 위한 보건의료 활동 에세이 ②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건강관리협회

위상을 드높였던 9박 10일을 마무리하며

Mongol

방문 5일째, 아이막 타리일란 솜 지역에서 진행된 건강검진 부스 이흐올학교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끝마친 후 우리는 흡수굴 아이막 타리일란 솜 지역으로 향했다. 멀리 보이는 나무들은 어느새 노란색의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마을은 형형색색의 예쁜 지붕들이 그림처럼 모여 있었다. 거리는 넓고 깨끗하며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 저녁 시간임을 짐작케 했다.

이 지역에서는 몽골 보건국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 도지사, 주민대표, 보건국 및 학교보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한·몽골간 합동 건강검진 부스가 운영되었다. 또 총 33개 학교의 보건실에 보건교육용 포스터와 건강 달력 등을 제공했으며 기초 장비, 구급의약품도 기증했다. 뜻 깊은 행사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음에 가슴이 뿌듯해짐을 느꼈으며 책임감 또한 무거워짐은 어쩔 수 없었다.

방문 6일째, 몽골에서의 짧은 에피소드

기름진 음식과 달라진 환경 탓에 속이 불편해 고생하는 일행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화장실 이용이 너무 힘들어 불빛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일을 봐야만 했다. 지금도 그때를 상상하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는지 감사한 마음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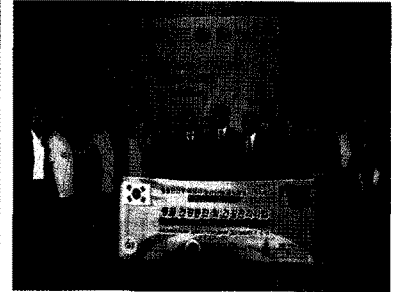
방문 7일째, 전년도 건강증진사업 모니터링

전년도 지원협력지역의 건강증진사업 모니터링을 위하여 에르데넷시를 방문했다. 에르데넷시 광산병원 보건국장 칸크야크와 병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소건자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평가회 및 지원장비에 대한 활동보고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들의 보탬이 몽골에서 매우 값진 보석으로 새롭게 피어난 듯해 즐거운 순간이었다.

또한 학생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예방, 학교보건 가이드라인 제시와 비만도 측정기, 구급의약품 키트 등 장비지원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와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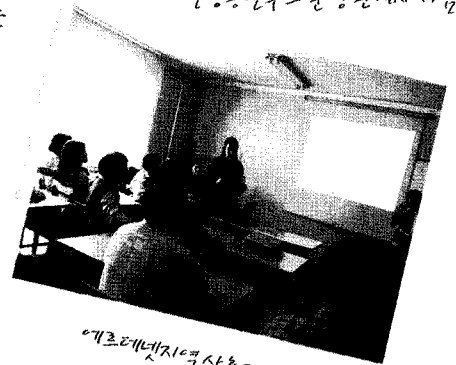
남서중 총장 인터뷰



건강증진부스 운영 관계자 기념촬영

방문 8일째, 모두가 따뜻했던 가족과 보낸 마지막 밤

가검물(serum)을 수탁검사 의뢰 기관인 모바이오에 안전하게 전달하고 몽골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몽골에서 여러 날을 보내는 동안 막내인 김현주 팀장(인천지부)은 은근한 매력과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말솜씨로 으뜸가는 인기를 독차지했고, 엄진영 팀장은 눈매, 광대뼈, 얼굴형에서 징기스칸의 기상을 닮았다 하여 징기스칸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또 조현옥 팀장은 수고스러운 총무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말해주었다. 모두가 따뜻하고 감사한 우리의 가족이었다.



에르데넷시역 사후관리 모니터링

방문 마지막 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리

마침내 몽골에서의 마지막 날. MOU 체결과 학교보건실 지원물품 기증식을 위해 아침 일찍 대표단 및 사업단원들은 협력기관인 국립보건국(DOH)으로 출발했다.

사내 교통사정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어서 예정보다 늦은 시간에야 도착할 수 있었다. 소드눔필 보건국 원장은 몽골 학생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고, 남서중 사무총장을 비롯한 우리 측 역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다. 그리고 11월에 있을 한국 방문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세계 속의 민관협력 체계 및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NGO 역량강화로 선진정책에 부응하는 디딤돌이 되었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보건의로 활동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위선양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9박 10일간의 몽골 학생 건강증진 지원사업. 힘겹게 찾아간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경험과 감동을 얻었기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수고했던 일행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

